

선고 연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관심집중

사측 패소시 3년 소금액 3조원대 지급 의무...재계 '축각' 노조 "정규직 전환금 활용하자"...사측 "노조 승소를 낮아"

경제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가 연기된 가운데 노사도 해법 마련을 놓고 장고(長考)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10일 이변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노동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즉 통상임금이라는 이름 그대로 통상적으로 노동자가 받는 임금을 말하는데, 연장근로 등 각종 가산수당 등에 대한 산정 기준이 된다.

만약 노조가 승소하면 기아차는 밀린 3년 간의 통상임금 및 수당 등 인건비 소급분과 지연이자까지 총 3조1000억여원을 노동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문제는 대법원이 통상임금을 잘못 적용한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 처리되더라도 추가임금을 청구하면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이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임금 청구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작 밀린 소급임금 지급 여부를 놓고

해석이 모호한 '기업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에 따라 판결하도록 한 바람에 비슷한 사건, 심지어 같은 사건조차 심급에 따라 판결이 엇갈리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함께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간 소송이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각종 수당 등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노사간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사상 최대 규모의 소송전으로 중요한 판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아 전 산업계의 관심을 한몸에 모으고 있다.

다만 사측은 1심에서 패소할 경우 항소하더라도 판결 즉시 총당금 적립의무가 발생해 회계상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총당금으로 쌓아야 하는데, 소송금액이 워낙 커서 유동성 위기를 피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소송금액과 소송인원 모두 최대규모라 향후 통상임금 판결의 시금석 역할할

? 신의칙 원칙
통상임금 소송의 최대 쟁점으로는 '소급지급 관련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인정 여부(65.7%)',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의 고정성 충족 여부'(28.6%)가 꼽혔다. 기업들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간 묵시적 합의·관행 불인정'(32.6%), '재무지표 외 업계현황·산업특성·미래 투자예로 등 고려 부족'(25.6%), '경영위기 판단시점 혼선'(18.6%) 등 때문에 신의칙이 쟁점이 된다고 답했다.

할 것"이라며 "완성차 업계의 경영악화가 부품사의 동반위기를 초래해 부품업체의 유동성 위기, 노사간 소송 분쟁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기아차 노조는 법정 다툼 대신 노사합의로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정규직 전환금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기아차 노조가 속한 금속노조는 통상임금 소송 등에서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현대차 계열사 17곳의 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개인이 모두 지급 받는 대신 2500억원을 '일자리연대기금' 조성해 사용하고, 사측도 같은 금액을 보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활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측이 일거에 수조원의 소급임금을 새로 준비하기 어렵다면 어차피 새 정부 지침에 따라 준비해야 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용으로 이를 돌려 정규직 노조가 연대 차원에서 협조하는 '노사 윈-윈(win-win) 전략'을 세우자는 얘기다.

이에 대해 사측은 소송에서 전 그룹사 노조가 모두 승소해야 조합원이 받을 가상의 돈을 전제로 해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하지만 송보석 금속노조 대변인은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금 채권도 늘어나고, 소송비용도 노사 합해 100억원에 육박한다"며 "노사 갈등 등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하면 노사 합의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생산량이 작년과 비교해 감소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생산량은 29만9290대(내수 6만9046대·수출 23만244대)다.

작년 같은 기간의 30만7690대(내수 7만6351대·수출 23만1339대)와 비교해 2.8%(8400대) 감소했다. 특히 내수 감소폭(9.6%)이 수출(0.5%) 감소 폭보다 컸다.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량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국산차에 대한 국내 수요가 부진했기 때문으로 기아차 관계자는 분석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59.47 (-8.92)	↓ 금리 (국고채 3년) 1.82% (-0.01)
↓ 코스닥 640.04 (-2.83)	↑ 환율 (USD) 1142.00원 (+6.80)



광주은행 모바일 전용 대출 100억 돌파

카카오뱅크 돌풍 속 선전

광주은행(은행장 김환)이 올 1월에 출시한 비대면 모바일 전용상품 '쏟아붓는행대출' 판매가 지난 7월로 100억원 돌파했다. 또한 모바일을 통해 대출한도를 조회하는 고객이 5만명에 달했으며, 실행건도 2000건을 넘어서는 등 고객들의 반응이 뜨겁다.

광주은행의 이 같은 선전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 돌풍 속에서 일취월장 실적이 더욱 의미가 있다. 이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에 미리 대비하고, 지역 은행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 덕분으로 분석된다. "며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전용상품 '쏟아붓는행대출'은 광주은행이 디지털 선도은행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고객 의견을 반영해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쏟아붓는행대출' 상품은 신용등급 변동 없이 간편하게 한도조회가 가능하며 별도 영업점 방문 없이 광주은행 스마트뱅크(MyCoolBank) 앱을 통해 대출금이 바로 입금되는 상품으로,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의견을 반영해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벤츠 스프린터 유료스타'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밴(van)의 공식 서비스 딜러사인 와이즈오토홀딩스는 '메르세데스-벤츠 스프린터 유료스타'를 10일 출시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스프린터는 1995년 1세대를 시작으로 20여년간 130개 국가에서 300만대 이상 판매된 프리미엄 밴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스프린터 유료스타는 차체 높이가 2.35mm로 지하 주차장을 진출입하기가 편리하고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 넉넉한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

190마력의 디젤 엔진과 자동 7단 변속기를 장착해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발휘하며 운전자를 보조하는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등 최첨단 안전 사양이 적용됐다.

판매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1억1990만원이다.

이와 함께 와이즈오토홀딩스는 서울 강남구 수입차 거리인 도산대로 인근에 지상 2층, 총면적 1409.3㎡(약 430평) 규모의 '메르세데스-벤츠 밴 강남 프리미엄 스토어'를 열었다. 이 시설은 와이즈오토 프리미엄 밴 강남 전시장과 메르세데스-벤츠 밴 공식 강남 서비스센터, 스타 라운지로 구성돼 있어 차량 구매부터 사후 관리까지 진행할 수 있다. /연합뉴스



보해양조 박승(오른쪽)지점장이 10일 광주북구청 광장서 정달성 추진위원회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보해양조 제공>

보해 "북구 평화의 소녀상 성금 동참합니다"

추진위에 200만원 전달

보해양조 광주지점(지점장 박승)이 '북구 평화의 소녀상'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 보해양조는 지난 10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성금 200만 원을 북구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에 건넸다. 전달식에는 박승 지점장과 정달성 추진위원장, 대운주류 이경민 사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전달된 돈은 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취지를 공감하고 지지하는 보해양조 광주지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이다. 보해양조 광주지점 직원들은 그동안 '만원의 행복'이란 이름으로 월급의 일부를 모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수년째 기부해 왔다. 이번에는 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소식을 듣고 기부하게 됐다.

북구 평화의 소녀상은 세계 위안부의 날인 14일 건립을 목표로 지난 3월 1일 추

진위원회가 발족식을 열고, 5000만 원을 목표로 모금활동에 나서면서 시작했다. 북구 평화의 소녀상은 서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역동적인 모습으로 북구청 광장에 들어설 예정이다.

보해양조 박승 지점장은 "북구 평화의 소녀상이 잊혀져 가는 불행한 역사를 기억하고 정의로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대형토지

- 빛그린산업단지 인근
- 문장공용터미널 근접
- 대로 및 중로 3면 도로접
- 개발가능 생산녹지 5,000평
- 가격 : 저렴하게 협의

H. 010-5236-7458

24/35PY 분양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 온세계 아이조움

분양 전환 계약금 500만원

대출 70% OK!	이자만 납부 OK!	청약 통장 NO!	즉시 입주 OK!
------------	------------	-----------	-----------

24PY: 방 3, 화장실 2, 주방, 거실

35PY: 방 3, 화장실 2, 주방, 거실

분양문의 (062) 610-9232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디터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